

2023년 9월 26일(화)

## 600장 - 교회의 참된 터는

- (1)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 (2)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 (3)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 292장 - 주 없이 살 수 없네

- (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 (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 (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 (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 기도 담당

9/26(화)	9/27(수)	9/28(목)	9/29(금)	9/30(토)	10/2(월)
김춘식 안수집사	정호성 안수집사		추석 명절		조병현 안수집사

##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600장	.....	다	함	께
기 도	.....	.....	김춘식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 이사야 18:1, 4~6	.....	인	도	자
찬 양	..... 이제야 돌아옵니다	.....	새	벽	찬양대
설 교	..... 『하나님의 감찰하심』	.....	엄재광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함	께
찬 송	..... 292장	.....	다	함	께
축 도	.....	.....	설	교	자

### ☞ 오늘의 말씀 < 이사야 18:1, 4~6 >

- 1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 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쫓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 5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찢어 버려서
- 6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 ※ 참고구절 시편 37:1, 4~7

- 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 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3년 9월 26일(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평안히 쉬게 하시고 우리의 코끝에 신선한 공기를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하루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바라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절망과 괴로움, 억울함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주님이 다 알고계시기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해 희망을 노래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건만, 사랑의 마음으로 보존하지 못하고 무지와 욕심으로 훼손을 넘어 파괴를 일삼았음을 고백합니다. 파괴된 피조세계의 고통이 우리의 삶까지 위협하는 환경 위기를 맞이해서야 저희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으로 주님 주신 자연을 필히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껏 교제하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왕성히 활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족과의 명절을 내려놓고, 먼 타국으로 가서 그 땅의 복음화를 소망하며 선교중인 의료선교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중인 선교팀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며,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두고 온 가정과 직장가운데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와 주의 몸된 교회를 정성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가운데 하늘의 신령의 복과 땅의 기쁨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